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1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1. 29.(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조애숙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이지호 위원(이상 7인)
- 불참위원 : 안인수 위원, 박병현 위원, 천지연 위원, 박종일 위원,
박배현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이상 7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 기자(센터장 대리 참석), 콘텐츠센터장

2026년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2026년도 첫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섬박람회 개최 등 우리 지역의 향후 방향과 직결된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역민의 신뢰를 지켜가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청자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나민수 위원님을 대신하여 LG화학 주재임원이신 이현규 위원님께서 새롭게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만 이현규 위원님께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위촉장 전달은 추후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새해에 소폭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영센터장은 이진호 센터장이 다시 경영센터장으로 복귀했고, 경영센터장을 맡았던 박광수 센터장은 보도 업무를 맡아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폭 인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큰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들어 행정통합 이슈가 전남·광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렴하여, 보도를 통해 균형 잡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단 문제, 미래 산업 문제, 섬박람회, 광양제철소 문제 등도 모두 어려운 과제입니다. 2차전지클러스터를 앞두고 2차전지 소재산업 분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동부 권역의 시민들께서 통합된 체제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도 깊이 고민하여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대표님께서도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부서별로 1월 업무 설명과 2월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 설명을 듣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이복현입니다. 심의팀장이 바뀌고 회의록 디자인도 산뜻하게 바뀌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콘텐츠센터는 1~2월이 올해 한 해를 준비하는 단계여서 크게 보고드릴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을 현재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순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 예정이어서 애니메이션, 웹툰 관련 기획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도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과 함께 공동 IP 기획과 제작·유통,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해서 콘텐츠센터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2월까지 모아 기획하여, 올해 좋은 프로그램 또는 기획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없으나, 순천대학교 천현진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현재 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시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순천 어울림도서관에서 강좌를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진으로는 이호선 교수, 이종범 웹툰 작가, 고명환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세 분의 강좌를 듣고 해당 강좌를 유튜브 콘텐츠로도 가공하여 추후 업로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현진 교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해 좋은 강좌 콘서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및 반영 사항은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관련 진행 사항과 구성원 여론을 잘 살피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저희는 <라전 뉴스 브리핑>을 통해 1월 9일, 16일, 19일에 통합 투표 등에 대한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취재기를 통해 국립대 통합 및 재투표 관련, 국립의대 추진 방향 등을 1월 15일에 다뤘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셨고, 보도특집 취재 기자와 함께 라디오에서도 5주 연속 기획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셋다운 리포트’ 연속 기획을 진행 중이며, 1월 5일부터 다음 주까지 5부작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디오 이슈 책>을 통해 여수시 인구 위기 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1월 12일에 방송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바웃 우리 동네’에서 개관 5주년을 맞아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을 초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아이템은 1월 15일부터 계속 반영 중이며, 현재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며 저희 유튜브에서도 공청회 라이브를 병행 송출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 관련해서도 계속 점검할 부분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슈 체크>을 통해 공정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라디오 정치 한판’ 패널 수준과 출연자 구성 등을 잘 살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제작진 미팅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토론이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콘텐츠센터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그것도 보고해 주시죠. 큰 내용은 아니지만, 콘진원의 AI 애니메이션과 관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기로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콘텐츠센터장

제가 보고드리면서 다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현재 콘진원에서 20억 원이 넘는 규모로 AI 관련 제작기술 지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 자회사인 <도스트11>을 주축으로 AI 관련 회사들, 여수MBC를 비롯한 MBC경남, 그리고 <모스트267>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응모해 선정되면 2년 연속 사업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IP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대표이사

저는 이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30억 원이고, 애니메이션은 콘텐츠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합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이 AI 제작 솔루션, 국산 제작 모델을 개발하는 공모이며, 규모가 크고 기술개발이 우선입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되면 AI 애니메이션 솔루션으로 실제 제작을 하고 유통까지 실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모스트267>과 MBC의 경험을 묶어 하나의 조직으로 참여해 실증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을 배경으로 <모스트267> 제휴 회사가 기획·개발 중인 IP가 콘텐츠로 유통될 것으로 보이며, 지상파인 본사 채널을 통해 유통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된다는 전제가 있으나, 선정되면 저희가 구상한 시스템과 구조가 작동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복헌 센터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센터장을 대신해 문형철 기자께서 그간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

보도센터 문형철입니다. 박광수 센터장을 대신해 급히 참석하게 됐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부서원들과 잘 공유하고 보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1월 주요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여론, 예상되는 변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리포트와 단신, 대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특별대담을 진행했고,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여부가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랐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 및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뉴스로 다뤘습니다. 신년을 맞아 지역별 주요 현안을 기획 보도로 정리했으며,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뉴스로 다뤘습니다.

다음으로 2월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보도 운영 방향을 고민했고, 그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보도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뉴스와 SNS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역 이슈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한 팩트보다는 상황의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보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뉴스의 디지털화와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지역 언론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으나, 2월 주요 취재 내용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하는지 취재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지역 정치권 분위기와 선거 판세, 주요 인물 동향, 행정통합이 선거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재편, 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지속 취재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뉴스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반 재투표 배경과 결과, 학생 의견 등을 리포트에 반영했습니다. <뉴스&이슈> 아이템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신년을 맞아 정원오 성동구청장 특별대담을 진행했으며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도 주제로 선정해 다

했습니다. 여수산단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노동자 원정 근로·실업 문제와 노동단체 요구 사항 등을 뉴스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행정도시와 관련해 광주시와 무안, 그리고 광주시 3축에 대한 균형 발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등 논의 과정의 주체에서 밀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 여수MBC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한데, 부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형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전남 체제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동부권 소외론이 행정통합 이후에는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핵심은 산업 재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되고 철강산업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특히 특별법안 특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반영하고, 동부권의 요구가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특별 통합시장 1인이 선출되는데, 민형배 국회의원 사례처럼 동부권 소외론을 의식해 동부권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반영해 뉴스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동부권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께서 주요 행사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저희도 1~2월은 준비 기간이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예율마루에서 뮤지컬 ‘미세스다웃파이어’ 행사를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총 4회 공연으로 개최했습니다. 연초이긴 합니다만 예매율 약 85%를 기록했으며, 지역에서 보기 힘든 작품을 선보여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경남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여수MBC가 주관합니다. 4월 12일로 잠정 예정돼 있어 관련 사항을 1월부터 준비했고 2월까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km, 10km, 하프, 풀코스로 운영했으나, 풀코스 참가가 많지 않아 올해는 풀코스를 제외하고 5km, 10km, 하프 등 3개 코스로 준비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 5일부터 단체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찰 관련 사업과 낭만버스킹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는 공고가 나오는 대로 준비해,
올해도 풍성한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청취 소감과 함께 위원님들의 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성주 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들 가운데 통합의 장단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MBC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시민들이 견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AI 관련입니다. 청년들이 진로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현재 전공이 향후 시로 인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로 인한 실업 위기에 대해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수MBC에서 기획 보도를 검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여수시 별관 증축 관련입니다. 여수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말하듯 지방 정부도 한쪽으로 기능이 몰리면 다른 지역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구도심권이 침해된 이유도 행정이 여천 쪽으로 쏠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각 지역별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며,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광주·전남 통합이 본격화되고 결정 단계로 가면, 행정적 통합뿐 아니라 지역민 통합을 위해서도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견 제시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수MBC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조애숙 위원

저도 새해 인사를 드리며,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말 여수공항 로컬라이저 공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

히 여수MBC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생각되어, 시청자 위원회를 떠나 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1월에는 불법 현수막 보도가 계속 나왔고 자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교차로 등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사안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메일로 전달받은 회의자료에서 주요 보도 운영 방향을 살펴보던 중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널리즘’이라는 방향성이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더 신뢰받는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전남도청이 무안에 있어 동부지역본부가 새로 지어지고 일부 부서가 이전해 왔음에도 동부권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편함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본부가 좁아 새로 지어지면 나아질 것이라 했는데, 체감상 개선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졸속 추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수MBC가 잘하고 계시지만, 형평성을 갖고 고르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천산단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천산단이 원유를 수입해 어떤 과정을 거쳐 중간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특집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민은 물론 학생들도 지역 산업과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단순히 ‘어렵다’는 표현보다 원인을 짚는 심층 보도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먼저 <셋다운, 50년 유산의 기로>가 방송연합회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주신 선물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순천의 ‘똥이’와 ‘루미’를 활용해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언론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견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정치에 먹혀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왜 ‘매서운 언론’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데, 지역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이슈처럼 느껴집니다. 왜 통합을 하는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통합 이후 실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찬성 또는 우려라는 수준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점이 답답합니다.

또한 통합 설명회를 도지사과 교육감이 직접 다니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인 선거운동처럼 비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가 함께 설명하고 이를 보도가 심층적으로 전달하면 좋겠는데, 정치인 설명회 보도만 많은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인지 고민됩니다.

광주·전남 통합이 지방자치 시대에 어떤 미래 지향적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 잘 알기 어렵고, 결국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하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언론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매서운 언론으로서 통합에 무엇이 요구되고 무엇이 현안인지, 지역민에게 통합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지역민들은 통합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지역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 통합을 넘어 지역민 통합까지 언론이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특구 지정 등만 남는 보도는 안타깝습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리더가 요구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보들의 출판기념회 위주의 보도가 이뤄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회의자료에 제시된 주요 보도 운영 방향이 매우 좋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편향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고민하며 운영 방향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한 놈만 팬다’는 말처럼, 여수MBC도 다양한 보도를 하되 지역 혁신, 지역사회 정서 변화, 지역민 삶의 질 변화와 관련해 무엇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프로그램으로 가져갈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위원장

통합과 관련해 여수MBC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초대 시장이 무안에서 나올지, 광주에서 나올지, 동부권에서 나올지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나 시스템은 무안과 광주 쪽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동부에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MB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저는 뉴스에서 농촌 관련 보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늘 확인하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느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협약 사업과 농민 기본수당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순천의 경우 서면이나 해룡면처럼 시와 농촌이 붙어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부권은 5년 전 430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 사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동부권은 농촌 협약 사업이 ‘농촌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

칭이 바뀌긴 했지만 도전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잘 모르고 정치권도 관심이 적어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이장님들이 해당 내용을 파악했고, 해룡면 농촌 이장님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가 새롭게 연결되기도 하고 장점도 있지만, 결국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종은 위원

반갑습니다. ‘미세스다웃파이어’가 매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방송사업센터에서 올해 블록버스터급 뮤지컬이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민들이 서울에서 꼭 봐야 하는 공연이 있다면 여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도특집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을 만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올해 보도특집 2편으로, 이번 특집에서 다뤘던 일본·독일 사례뿐 아니라 석유화학 위기의 진앙지인 중국, 그리고 향후 큰 위협이 될 중동의 설비 투자 동향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중동에서는 CO2C(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 공정을 구축 중인데, 2028년경 가동되면 수출에 큰 위협이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조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위기가 근원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다시 환기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LNG 발전소 관련 이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환경단체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데, LNG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이 아니라면 LNG 발전소를 짓는 흐름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해 더 친환경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LNG 발전소가 아니라면 여수산단의 일자리가 다시 생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LNG 발전소 외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왔듯 과거 9천 명에 이르던 플랜트 노조원이 현재는 2천 명 정도만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쁘다’고만 규정해 건설을 막게 되면 지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 LNG 발전소는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솔루션으로, 발전기를 설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전기를 판매하는 목적이지만, 저희는 자가 소비 목적이란 점도 지역사회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저도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LNG 발전소를 일자리 창출과 환경이라는 두 측면에서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천산단의 현실도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플랜트 일자리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는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에는 대한민국에서 CO2 배출이 가장 많은 광양제철소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2.5기가 규모 LNG 발전소를 지었을 때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지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유돼 오해 없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MBC에서도 이해를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CO2 포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섬박람회를 포함해 바다를 기반으로 친환경 관광 주도 도시로도 볼 수 있고,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은 위원

말씀하신 대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문도 풍력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점을 문의해 보니 2035년, 늦어지면 2040년쯤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LNG를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등을 많이 홍보한다면 기업들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천산단은 동부 지역의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동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 다음 세대까지 고려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은 위원

동부권 소외 문제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여수국가산단인데 에너지국이나 전략산업국 같은 주요 부서는 서부에 있습니다. 동부청사를 만들면서 주요 부서를 동부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당시에는 생활권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옮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 자체가 동부권을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늘은 박광수 센터장님 대신 문형철 기자님이 참석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동부권 소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이지호 위원

전남·광주 행정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문화예술 의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또한 작년 <마나 모아나> 전시예 약 5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했는데, 이는 여수MBC 홍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CGV를 자주 가는데 <국보>와 <시라트> 영화를 봤을 때 관람객이 2~3명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관람이면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지 물었더니 상영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예술 영화나 실험영화가 점점 상영되지 않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에 <시라트>를 보려고 LF CGV를 확인했더니 거의 상영하지 않았고, 동부청사 쪽으로 가니 대부분 만화영화처럼 보였습니다. 관람객이 적더라도 예술영화나 실험영화 등 중요한 영화는 한두 명이 보더라도 꼭 상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콘텐츠로 흐르는 추세는 있습니다. 다만 작품성이 있거나 예술적인 콘텐츠는 편성의 묘를 살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답변이나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이전 문제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보도자료도 있었고 관련 이야기가 있어 지역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은 진행 상황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청자위원회 보고를 통해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 협약에 근거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행정행위가 이어진 결과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대안을 모색해 가능하면 협약에 따라 길을 찾아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 조애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를 계속 퍼뜨립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고 보도를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시민들 다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거나, 여기에 눌러앉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저희로서는 이전 문제가 소지역 간 갈등 프레임으로 국한돼 보이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지상파·방송산업은 산업적으로 매우 어려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호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도 디지털 충격을 받았고, 지상파 광고 역시 넷플릭스를 포함한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소멸 위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수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마침 순천에 저희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지상파 회사로서 적합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모색한 것입니다. 이를 소지역 간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들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저희를 공적자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대응 방식은 공적자산으로 대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 아쉽습니다. 저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나 순천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부에 공영방송이 하나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 박소정 위원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논리에 지역사회가 휘둘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는 말처럼, 이전을 공식화했으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으로 결단을 내려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든 정상적이고 신사적으로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면 독심 있게 추진해 상반기에는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철차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겠다는 입장만 유지하니 이런 말들이 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팀에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이전 문제가 보도된 이후 여수시나 책임 있는 분들 가운데 여수MBC가 처한 상황과 필요,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논의하자고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 박성주 위원

루머가 많이 도는데, 그중 하나가 ‘허가 사항이다’, ‘허가가 나온 것도 없다’ 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파생돼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루머를 계속 퍼뜨리니 제가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정치권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수MBC는 사기업이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결정해 협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와 연관 지어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MBC 입장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끊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애숙 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했던 행정과 의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는 이야기가 나올 때, 공기업도 아닌데 법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MBC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박소정 위원

광주·전남 통합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에서 시군 단위 통합까지도 미리 논의를 촉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껍질만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논의가 없습니다. 이런 논의까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역 이기주의를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수MBC 문제도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체로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서 시민사회는 대표성이라기보다 대변성이지만, 공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소멸, 인구절벽, 지방소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 속에서 시군 단위 통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미리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대-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전남대 의대 의사 증원 같은 새로운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반대했다고 2차 투표로 어거지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언론이 지역사회를 견인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매서운 언론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선거, 여수MBC 문제와 관련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